

宣言書

李朝

吾等은茲에我鮮朝의獨立國임과朝鮮人의自主民임을宣言하노라此로써世界萬邦에告하
야人類平等의 大義를 茲明하며 此로써 孫萬代에 許하야 民族自存의 正權을 永有케 하노라
半萬年歷史의 權威를 仗하야 此를宣言함이며 二千萬民衆의 誠忠을 合하야 此를佈明함이며
民族의 恒久如一한自由發展을 為하야 此를主張함이며 人類的 良心의 發露에 基因한 world改
造의 大機運에 順應并進하기 為하야 此를 提起함이니 是一天의 明命이며時代의 大勢이
人類共存同生權의 正當한發動이라 天下何物이던지 此를 拙止抑制치못할지니라
舊時代의 遺物인 侵略主義強權主義의 機牲을 作하야 有史以來累千年에 처음으로 異民族籍
制의 痛苦를 嘗한지 今에 十年을 超한지라 我生存權의 剝奪됨이 무릇幾何이며 新銳와 獨創으로써 world文化
障礙됨이 무릇幾何이며 民族的 尊榮의 毀損됨이 무릇幾何이며 心靈上發展의
의 大潮流에 寄與補裨할 機緣을 遺失함이 무릇幾何이뇨

噫라 舊來의 抑鬱을 宣暢하려하면 時下의 苦痛을 擴脫하려하면 將來의 脅威를 袪除하려하면
民族의 良心과 國家의 廉義의 壓縮銷殘을 興奮伸張하려하면 各個人格의 正當한 發達을 遂하
려하면 可憐한子弟에 付苦恥의 財產을 遺與 치안이 하려하면 子孫孫의 永久完全한 慶福을
導迎하려하면 最大急務가 民族의 獨立을 確實케 함이니 二千萬各個 仁人마다 方寸의 刃을 懷
하고 人類通性과 時代良心이 正義의 軍과 人道의 干戈로 써 護援하는 今日吾人은 進하야 取하
매何強을 挣치못하라 退하야 作하매 何志를 展치못하라

丙子修好條規以來 時時種種의 金石盟約을 食하 았다 하야 日本의 無信을 罪하려 안이 하노라
學者는 講壇에서 政治家는 實際에서 我祖宗世業을 植民地視하고 我文化民族을 土味人遇하
야 한갓征服者의 快를 貪할 뿐이오 我의 久遠한 社會基礎와 卓犖한 民族心理를 無視한다 하야
日本의 少義함을 責하려 안이 하노라 自己를 策勵하기에 急한 吾人은 他的怨尤를 暫치 못하노
라 現在를 綢繆하기에 急한 吾人은宿昔의 懲辦을 暫치 못하노라 今日吾人의 所任우다 만自己
의建設이 有할 뿐이오 決코 蒼怨과 一時的感情으로 써他를 嫉逐排斥함이 안이로다 舊思想舊勢
力에 犬累된 日本爲政家의 功名의犧牲이 된不自然又不合理한 錯誤狀態를改善匡正하야 自
然又合理한 正經大原으로 歸還케 함이로다 當初에 民族的要求로서 出치안이 한兩國併合의
結果가 畢竟姑息的 威壓과 差別의 不平과 統計數字上虛飾의 下에서 利害相反한兩民族間에
하고真正한 理解와同情에 基本한 友好的 new局面을 打開함이 彼此間遠禍召福하는 捷徑임을
明知할 것 안인가 또 二千萬含憤蓄怨의 民을 威力으로 써拘束함은 다만 東洋의 永久한 平和를
保障하는 所以가 안일뿐 아니라 此로 因하야 금正當한 生榮을 遂케하는 同時에 日本으로 하야
나 今日吾人の朝鮮獨立은 朝鮮人으로 하야 금正當한 生榮을 遂케하는 同時에 日本으로 하야
금邪路로 서出하야 東洋支持者인 重責을 全케하는 것이며 支那로 하야 금夢寐에도 免하지 못
하는不安恐怖로서 脫出케하는 것이며 또 東洋平和로 重要한一部를 삼는 world平和人類幸福
의樂을 飽享할 것이며 我의 自足한 獨創力を發揮하야 春滿한 大界에 民族의 精華를 結紐할지
로다

吾等이 茲에 奮起하도다 良心이 我와 同存하여 真理가 我와 并進하는 도다 男女老少업시 陰鬱
한 古巢로서 活潑히起来하야 萬彙羣象으로 더부러 欣快한復活을 成遂하게 되도다 千百世祖
靈이 吾等을 陰佑하며 全世界氣運이 吾等을 外護하나니 着手가 끝 성공이라다 만前頭의 光明
으로 蒼進할 뜻이다

公約三章

一、 今日吾人의 此舉는 正義、人道、生存、尊榮을 為하는民族의 要求이니 오직自由의 精
神을 發揮할 것이오 決코 排他的感情으로 逸走하지 말라

二、 最後의 一人 마지막 最後의一刻까지 民族의 正當한 意思를 快히 發表하라
一、一切의 行動은 가장 秩序를 尊重하야 吾人의 主張과 態度로 하야 금이 대사지던지 光明
正大하게 하라

朝鮮建國四千二百五十二年三月一日 朝鮮民族代表

孫秉熙

吉善宙

李弼柱

白龍城

金完圭

金秉祚

金昌俊

權東鎮

羅秉惠

羅仁協

梁甸伯

梁漢默

劉如大

李明龍

李昇薰

李鍾勳

李鍾一

朴準承

朴熙道

朴東完

林禮煥

吳世昌

吳華英

申洪植

申錫九

韓龍雲

洪秉箕

鄭春洙

崔聖模

崔麟